



대전의 관문 대전복합터미널 재탄생

동구는 2009년 12월 23일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서 동구청장과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복합터미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대전복합터미널은 총공사비 1,100억원을 들여 용전동 63-3번지 일원 35,264㎡ 부지에 연면적 112,074㎡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201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전복합터미널은 동관(현 시외버스터미널)과 서관(현 고속버스터미널)이 각각 승차동과 하차동으로 활용되며, 환승통로를 통해 연결된다. 서관은 운수시설, 주차장(1,153면), 신세계 대형쇼핑센터와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동관은 운수시설, 주차장(173면), 영화관, 대형서점 등의 문화·편익시설을 갖추게 된다.

동구는 대형쇼핑센터, 서점,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복합터미널이 완공되면 쾌적한 시설과 편의제공으로 주민 불편 해소, 이용객 증가, 도시 이미지 개선 등 동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12월 16일에는 파라다이스, (주)호텔 선사인과 함께 가양동에 비즈니스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민관 협약식이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가양동 45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비즈니스 호텔은 토지 50억, 건물 150억 등 총 2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7월 착공, 201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도입시설은 숙박시설, 대규모 컨벤션 홀, 대·소 연회장, 오락·휴양시설, 공연장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로써 가양동·용전동 일대 동구 북부권은 새롭게 들어서는 복합터미널과 비즈니스호텔, 국민체육센터, 대전문화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상업지구로 탈바꿈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